

**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탱화·법종 전시관  
 전화: 02-735-1045 / 팩스: 02-735-2344

#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경삼/본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금주의 법구**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아라  
 <숫타니파타>

**법회 안내**

호국원광사 (02)796-0230  
 국반대학원법회 격주 수 낮12시 조달분부법회 격주 금 낮12시 불교진흥회후원회법회 매월 둘째 월 오후2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화요법회 매주 화 오전11시40분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6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량사 (02)966-219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저녁6시 일반법회 둘째, 넷째 일 오전10시  
 화계사 (02)902-2663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선우회 매주 토 오전9시 일반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삼선 포교원 (02)923-05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저녁6시30분 미산 한마음선원(0551)21-5454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화 저녁7시 정법회 매월 첫째 토 오후3시 금요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 거사법회 매주 수 저녁7시 보살법회 매주 수·목 오후2시  
 인천 연회사 (032)873-074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저녁7시 일반법회 매월 1일 오전11시 토요법회 매주 토 저녁9시30분  
 전북 실상사 (0671)34-303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저녁7시

\* 이란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수능’ 끝낸 고3생**

## 갈곳이 없다

주위 무관심 해방감서 탈선우려  
 사찰개방, 강좌·상담으로 지도를

95학년도 대입 수능능력시험을 끝낸 고3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안을 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년 입시는 1백27개 전기대학 가운데 38개 대학만이 본고사를 실시해 수험생의 반수가 사설 무작정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일선교회는 본고사를 포기한 학생들을 위해 예절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등 탈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교사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종교계 및 사회와 청소년단체가 수험생에 대한 지도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교계는 그동안 수험생에 대한 지도는 물론 포교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청소년지도법사들의 견해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시험전까지 진행하던 입시 지도를 회향하고 더 이상의 수험생에 대한 관심이 중단된 상태. 불교학생회를 운영하는 사찰에서도 입시전날 봉행하는 합격기원법회 이외에는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기원법회도 대부분 학생회와 동문과 후배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은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험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양강좌, 봉사활동, 교직원사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했다. 따라서 지역 사찰마다 입주문을 개방하고 경내에 문화교실등의 교양강좌를 개설한다던 수험생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 입장권 비리 의혹**  
 내무부 조사, 전국 7개소 적발

선운사도림공원을 비롯 속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의 유명 국립·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입장료 부정징수가 드러나거나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초 내무부가 국립·도립공원 7곳을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들이 해당 시·군의 감인없는 입장권을 팔거나, 회수된 입장권을 되파는 등 입장료 징수와 관련한 부정의 소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계종 사회부의 한 관계자는 "입장료와 관련한 비리가 속출한다는 실정을 그동안 가져왔다"며 "5~6년전 조계종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국립·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부정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지난 11월 17일 관람료



**중단없는 개혁을...** 조계종 신임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달 30일 오후 4시 청와대를 방문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 함담했다. 이날 김대통령은 월주스님의 당선에 축하의 뜻을 밝히고 중단의 대화합과 중단없는 자기개혁을 통한 국민 속의 불교가 되도록 중단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예산 대폭늘려**  
 교육·포교사업 집중편성  
 작년 대비 83%

조계종 새해 예산이 66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8일 속개된 조계종 제114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심의 확정된 이번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83%가 증액된 것이다.  
 이번 예산은 조계종의 기구 확장에 따라 대폭 늘어났으며 교육 포교 복지 사업 등 중점 목적사업에 집중 편성됐다.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문화재 관료료 분담금 18억원 △일반분담금 10억1천만원 특별분담금 15억8천만원 직영사찰 분담금 11억5천만원 등 분담금이 총 37억4천만원으로 특별분담금과 직영사찰분담금이 신설돼 재정의 주요요건을 이루고 있다.  
 세출은 후문인 교육인 포교인 등 3대 부문 편성 △총무원 33억2천9백6십6천5백원 △교무원 21억2천5백2십9천6백원 △포교인 11억4천6백4천2천5백원 등이다.

## 4년제 정규대 숙원 풀렸다

교육부, 중앙승가대 위치변경 계획 승인

김포 금정사 부지로 96년 2월까지 이전  
 중앙승가대(학장 송산)가 정규 4년제 대학 승격의 숙원을 풀게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중앙승가대의 김포군 금정사 부지의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승가대의 정규대 승격을 위한 선결 조건이었던 학사 이전이 오는 96년 2월까지 완료되면 승가대는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승인받게 된다.  
 금정사 주지 명훈스님이 기증한 금정사 부지-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산 159-1는 총 5만4천여평으로 승가대는 이곳에 강의실 법당 기숙사 도서관 실내 체육관 교수연구동 등 대학설치 기준점에 의거한 설비를 96년 2월까지 확보해야 한다.  
 승가대는 교육부 허가가 남에 따라 이달부터 1만5천여평에 이르는 학사 건립 기초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어**  
 “그렇게 썼습니까.”  
 세금도둑들이 부천뿐 아니라 이 나라 곳곳에서 우글거리고 있음을 보도한 어느 TV뉴스에서 앵커가 던진 첫 말이다. 이날 뉴스는 세금도둑을 비롯하여 보석 밀수사건, 전세방 연기위해 시작된 아주 나이 어린 부부의 맞벌이 강도, 철도 공무원들의 역대 사상 도박단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을까. 이 나라의 종합뉴스 시간이 이처럼 밤새나는 부패한 소식으로 장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어디 이날 뿐인가. 연일 이어지는 이런 썩은 뉴스에 국민은 이제 중독된 상태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뉴스 뒷부분을 장식한 효자효부대상 잔치같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가뭄에 콩나듯 가끔 듣는 소식이지만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학교 장학금으로 회사한 보살 할머니가 있고, 장기를 나눠주는 보살들이 있어서 우리사회는 그나마 지탱해 나가나 보다.  
 이제는 말이 소용없다는 느낌이 든다.  
 다만 우리 모두 작은 행이라도 실천이 있어야 썩은 사회를 화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부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과세방법이 공평함으로써 수탈의 공포를 없애야한다. 관료들이 직분을 지키고 은혜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백성을 대함으로써 부패 관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공포를 없애야 한다. 백성들이 모두 도리를 지키고 겸손하며 나라를 사랑함으로써 도둑들이 날뛰는 공포를 없애야한다.”  
 세도들이 흘리는 오늘 우리는 다함께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청렴공직자의 상과 시민정신을 되새기면서 자성의 뜻을 여며야겠다.

법정스님 ‘나눔의 기쁨’ 부산 설법 지상중계 11번

**한보그룹**

본지는 불기 2539년(음력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축하 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한 해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종단 및 사찰 연합회, 사찰(포교원), 각종단체  
 내 용: 신년 축하광고에 관한 내용  
 금 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연락처: TEL 737-8881 FAX 737-0697

**세계속의 한국인, 세계속의 한보인**

“만리풍파에 시달리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도 많았고 시장도 할터이니 약소하나마 거세한 황소 세마리와 닭, 오십수, 그리고 달걀 일만개를 보내노라.”

##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전포고장”

21세기 신화를 창조하는 한보의 미래도전장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치의 물러남이 없는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앞선 사고, 남보다 도전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초일류가 되기 위해서 한가지 더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에게 하는 정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바로 페어플레이 정신이자, 正道를 걷고자 하는 우리 한국인의 민족정신 — 바로 한보가 지향하는 新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진취적인 사고와 패기 도전정신으로 민족의 자랑스런 일을 오늘에 되살려, 당당히 세계 초일류의 대열에 우뚝 서는 일, 21세기 신화를 창조하는 한보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도전하는 한보, 한보인

<b>철 강</b>	한보철강이 뜨거운 불꽃에 내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b>제 약</b>	장래없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보는 신약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b>건 설</b>	효율적인 국토 개발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신화가 한보에서 시작됩니다.	<b>정 보</b>	김포도림사찰 구획하고 있는 승보(한보)사찰이 미래 정보와 사회를 앞장기고 있습니다.
<b>에너지</b>	지하의 막대한 에너지 사막에서 에너지 대국의 꿈을 착실이 실현해 갑니다.	<b>보 복</b>	기업이윤을 사회로 환원시키고자 한보는 영동전선 내역을 통해 사회의 도움이 될 원전기부 배정하고 있습니다.

